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사관생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중심으로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본 연구는 동료 상담을 위한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 있는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프로그램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것이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는 선행 연구 이외에 현장 육구 조사 및 상담 사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징은 10명 내외의 소집단 지도 형태로, 경청, 관심 기울이기, 공감, 질문, 진실성 등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기술 배양을 주 목적으로 하며, 생도들의 주요 갈등인 선후배 관계, 이성 교제, 진로, 생활 적응 등의 사례를 가지고 총 20시간의 훈련을 통해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진단하기 위한 프로그램 평가는 공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유사 실험적인 훈련 장면에서 이루어졌다. 평가의 목적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동료 상담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얼마나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와, 동료 상담자 훈련이 생도 집단 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론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 피훈련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훈련 후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모의 내담자에 의한 상담자 평가에서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호감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아개념은 9개 하위 요인 중 자아 수용만이 훈련 후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고, 생도 집단 응집력은 전 중대에 걸쳐 훈련 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추수 측정시 사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한계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평가 방법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개발된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및 여기에 수반된 훈련 자료는 동료 상담자 뿐 아니라 초보적인 상담 실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Varenhorst(1984)는 “동료 상담: 과거의 약속, 현재의 위치, 미래의 방향”이란 논문에서 비록 동료 상담이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담 활동의 하나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로부터 현재까지 상담 활동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동료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Campbell, 1988; Chikering, 1987; Crouse,

1985; Fondacaro, Heller & Reilly, 1984; Frisz, 1986; Grant, 1987; Kehayn, 1987; Kending, 1985; Nenortas, 1987; Puccio, 1986) 이를 지원하는 단체도 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계명대학 학생생활연구소의 활동을 필두로(김 정희, 1990) 이와 관련된 논문이 대학 학생생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나 둘 발표되고 있으며 동료를 이용한 상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이 관용과 김 순화, 1983; 이 형득과 김 정희, 1983; 장 혁표, 1986; 홍 경자와 노 안녕, 1985).

동료 상담이 중요한 상담 활동의 하나로 주목 받기 시작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준전문가(paraprofessional)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 못지않게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 낸다는 점이다. 동료 상담은 준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조력 활동의 한 형태이다. 1979년 Durlak(1979)은 간호원, 대학생, 일반 성인 등의 준전문가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사업가 등 전문가 집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조력 활동을 42개의 논문을 통하여 개관해 보았다. 그 결과, 임상적 효과는 오히려 준전문가집단이 전문가 집단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곧 연구 방법론상의 결함을 주 이유로 Nitzel과 Fisher(1981)에 의해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Hattie와 그의 동료들(Hattie, Sharpley & Rogers, 1984)의 재검토 결과, 어느 정도 Durlak의 주장이 근거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조력 효과에 관한 일련의 논쟁은 조력 활동을 준비하는 교육 및 훈련 단계의 적합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고, 준전문가들을 조력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 동료 상담의 등장 배경으로 상담자 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구 및 압력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의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강조하는 학교 장면에서의 움직임과 상담 및 심리 치료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이러한 운동에 대한 공감 및 상담 성과에 대한 회의로 전통적인 의학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예방 및 교육에 비중을 두는 생태학적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자문이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김 광은, 1990b; 김 충기, 1989; 이 장호, 1988; 이 형득, 1982; Varenhorst, 1984).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료 상담은 그 기관이나 조직의 요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Crouse, 1985; Fondacaro et al., 1984; Grant, 1987; Kehayan, 1987; Nenortas, 1987), 동료 상담을 주도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Tindall & Gray, 1985)도 이러한 변화를 대표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세째, 인간 발달 측면에서 특별히 청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심리학적 사실은 청소년 상담의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동료상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였다. 동료 상담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활용될 수 있지만 특히 가치의 내면화 과정에서 또래의 영향이 결정적인 청년기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보고된 대부분의 동료 상담 프로그램은 이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료 상담자가 다루는 문제 역시 청년기의 보편적 발달과제인 학업, 진로, 가치관 탐색, 대인 관계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수용과 문 길린, 1990; Chickering, 1987; Campbell, 1988; Crouse, 1985; Fondacaro et al., 1984; Frisz, 1986; Grant, 1987; Grietes, 1984; Kehayn, 1987; Nenortas, 1987; Rabiiecki & Brebeck, 1985; USAFA, 1989).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카운슬러 강습이 시작되어 훈련받은 카운슬러가 배출된 이래(황 용연, 1985), 1972년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상담 활동을 시작으로(육군사관학교 심리학처, 1984) 사관학교와 같은 특수 교육 기관에서도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면서도 군조직의 특성이 강한 사관학교는 조직의 특성상 상담활동이 요구되면서도 또한 그 활동에 많은 제한을 안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은 개방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상담의 기본 철학과 다소 상충되고, 전문적 상담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일단의 부정적 시각, 그리고 전문 직업장교로서 임관 후에도 계속되는 선배 학년을 포함한 상급자 및 상관들과의 관계는 솔직하고 공감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생도들이 당면하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카운슬러나 훈육 장교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에게 호소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생도들의 상담 내용 분석에서 볼때 그 문제의 원인이 개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서 야기되는 비율이 높아, 이들에게 전통적인 개인 중심의 치료적인 상담 접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사관학교의 상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적용과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이고 예방적인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료 상담은 생도들의 발달단계나 갈등내용,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볼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활동이라 생

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료 상담에 대한 요구 및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실정이고, 동료상담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심을 둔 연구도 매우 드물다. 더구나 사관생도와 같은 특수집단을 위한 상담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당면 문제와 대부분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군조직의 갈등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담활동의 전반적인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연구 대상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료 상담자 훈련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수용 등(1990)의 의사소통과 가치명료화 훈련프로그램이 있으며 Fullmer(1978)의 동료 상담자 훈련지침서를 변안한 장 혁표의 연구(1986)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제 훈련을 통한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효과의 진단 및 일반화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동료상담과 관련되어 그 훈련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동료 상담자가 주도한 집단 상담 참가자들의 자아개념이 전문가가 주도한 집단 못지않게 변화했음을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이 형득 등, 1983; 홍 경자 등, 1985).

반면 미국의 경우 동료 상담자 훈련을 위해 기초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좀더 세분화된 동료 상담자의 역할-가치 명료화, 약물 및 음주, 리더십, 스트레스 대처, 소집단 토론 리더 등-을 돕는 고급 수준까지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Tindall et al., 1985; Tindall, 1989). 여기에서도 동료상담자 훈련의 효과를 측정한다

연구는 동료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자아 개념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동료 상담의 효과를 각 집단이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료 상담 활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타당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동료 상담자 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훈련에서는 사관생도라는 특수 집단에 초점을 두어 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제 훈련을 통한 평가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관생도에게 적합한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동료 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동료 상담자들의 선행 경험이나 학습 수준, 이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이전 상담이나 관련 분야의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란 점에서 기초적인 상담 기술 및 태도 습득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훈련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며, 내용면에서도 정상적인 청년기의 발달 과제 및 사관학교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본 평가의 목적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동료 상담자로서 필요한 상담 기술 및 태도 습득에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보는 데 있으므로 그 초점은 동료 상담자 자신의 훈련 전후의 변화에 둘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의사소통 능력이나 자아개념 이외에 상담 실습자 평가에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내담자에 의한 상담자 평가를 실시하여 좀더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생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료 상담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의 응집력 변화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동료 상담자 훈련이 전체 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생도 집단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병행하여 제작, 활용하고자 한다.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과정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4단계-계획, 수립, 실시, 평가-에 따라(Macher, et al., 1984; Tindall et al., 1985)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방향 및 지침 마련을 위해 네 가지 방향의 시도가 있었다. 즉 동료 상담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연구와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기 위해 생도들의 교육 일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가 대상의 간담회를 갖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료 상담이 실시되고 있는 계명대와 보편적인 사관학교의 특성 파악을 위한 육사 방문 및 자료 수집 활동이 있었다. 또한 생도 생활 경험이 부족한 1학년울 제외한 2, 3, 4학년울 대상으로 동료 상담자 훈련에 관한 간단한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방향 및 내용 구성시 참고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Tindall(1985)의 기초적인 수준의 동료 상담자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여 선행 연구, 욕구 조사 결과, 연구자의 상담 경험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훈련 자료와 평가를 위한 상담 자

본, 집단 응집력 척도 등의 개발이 병행되었다. 특별히 훈련 자료 제작시 도와주는 행동의 탐색, 관심 기울이기,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 등은 Tindall 등의 연구(1985)에서, 감정 표현어는 김 계현의 저서(1990)를 참고하였으며, 개방 질문의 예는 Chikering의 연구(1987)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프로그램 평가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매주 2시간씩 10회에 걸친 20시간용으로 훈련 내용 및 방법은 표 1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할 수 있는데, 1부의 주 내용은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교육, 집단 구성원간의 이해, 도움 행동의 특징, 관심 기울이기,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 등이며, 제2부는 공감, 질문, 진실성, 종합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 및 실제 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훈련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훈련 대상이 상담 훈련이나 교육 경

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상담 기술 훈련에 앞서 상담의 기본적 이해를 위한 과정이 훈련 전반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는 2, 3주에 계획되어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이해”, “도움 행동의 특징” 등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학교 장면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로 인한 공백 기간을 고려하여 전반부의 훈련 과정을 일단락 지어 주는 것이 연속되는 훈련 중에 생길 수 있는 단절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에서 학습할 수 있는 주요 상담 기술은 관심 기울이기, 경청, 공감, 질문, 진실성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료 상담자 훈련을 위한 Tindall 등의 모형(1985)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지만, 이는 초보적인 상담자 훈련에서는 물론 일반적인 상담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술이라는 선행 연구들(김 계현, 1990; 이 형득, 1982)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본 훈련은 공감 훈련에 2주를 할애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동료 상담으로 인한 가장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가 공감적 지원 체계의 제공이라는 점과, 실제 생도 대상 욕구 조사 결

표 1.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요

주	내 용	방 법
제 1주 : 동료상담이란	○ 프로그램 예비교육 ○ 동료상담의 개관 ○ 동료상담자의 활동 영역 ○ 사전검사	강의(30분) 토론(50분) 실습(40분) 평가(40분)
제 2주 : 나와 다른 사람의 이해	○ 나 자신의 이해 및 공유 ○ 다른 사람의 소개 경청 ○ 인상적 소개에 대한 느낌 발표	강의(10분) 실습(90분) 토론(20분)

제 3주 : 도와주는 행동의 탐색	○도와주는 행동의 개인적 선호 지각 ○효율적 대 비효율적 행동 지각 ○도와주기 실습	강의(10분) 실습(90분) 평가(20분)
제 4주 : 관심 기울이기	○관심 기울이기의 중요성 ○비언어적인 관심 기울이기 ○관심 기울이기 평정	강의(30분) 실습(80분) 평가(10분)
제 5주 :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의사소통 ○의사소통 곤란 경험 ○의사소통 장애 요인들의 정의 ○의사소통 장애 요소 실습	강의(30분) 실습(80분) 평가(10분)
제 6주 : 공감 I	○공감 반응 ○감정 표현어 사용 ○바꾸어 말하기	강의(20분) 실습(90분) 평가(10분)
제 7주 : 공감 II	○감정 읽기 ○가장 좋은 공감 반응 ○공감 종합	강의(10분) 실습(100분) 평가(10분)
제 8주 : 질문	○질문의 기능 ○개방적 질문 ○효율적인 질문	강의(30분) 실습(80분) 평가(10분)
제 9주 : 진실성	○진실성 ○진실 대 진실하지 못한 반응 비교 ○진실한 반응 실습	강의(20분) 실습(90분) 평가(10분)
제10주 : 동료상담의 시작	○모의 내담자와 상담 실습 ○상담 과정 관찰 ○사후검사	강의(10분) 실습(50분) 평가(40분)

과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 기간의 제약으로 기초적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약, 주장, 직면, 문제 해결을 다루지 못했지만, 특별히 진실성 기술을 포함시킨 것은 이 기술이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의 하나라는 점과, 생도 집단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학년간 계급의식과 상호 불신감이 동료 상담의 곤란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어 진실성과 같은 상담자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반응은 동료 상담의 효율을 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세제, 훈련 및 평가 자료의 예를 생도 생활의 갈등을 소재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생도들의 당면 갈등 및 동료들과의 주 상담 내용은 생활적용, 이성교제, 진로, 학업, 대인관계, 성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용의 범주 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청년기의 발달 과제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는 생도 생활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훈련 자료에서 공감 기술 및 진실성 반응의 예들은 생도 생활을 소재로 하여 실제 동료 상담 장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평가 도구 및 자료로 활용될 의사소통

능력 검사의 주관식 문항이나 종합 훈련 및 상담자 평가시 사용되는 상담 각본들도 생도 생활에 바탕을 두어 보다 실제적인 경험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사관학교 이외의 장면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각 집단이나 조직과 관련된 사례로 바꾸어 적용한다면 초보적인 수준의 동료 상담자 훈련을 위한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째, 각 훈련 회기별 상담 기술은 강의, 시범, 실습, 토의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습득하며, 회기별로 나누어 학습한 상담 기술은 마지막 종합 훈련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료 상담의 훈련 모형은 대부분 강의, 실습, 평가의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피훈련자의 적극적인 실습을 통한 경험을 강조한다(Sachnoff, 1984). 이러한 맥락에서, 본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상담 기술에 대한 훈련자의 설명을 통해 개념적인 이해 및 피훈련자의 동기를 고양시키고, 이러한 기술을 훈련자가 직접 시범해 보임으로서 피훈련자의 모방 및 각 기술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만들도록 하였다. 이 때 비디오를 통한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고, 피훈련자와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보조 훈련자를 활용하여 피훈련자들과의 호흡 및 동일시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실습 과정에서는 피훈련자들 스스로 상담자, 내담자, 혹은 평가자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상호 피드백 및 상담 기술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 토의 및 평가 과정에서는 각 훈련 회기별 학습 내용의 정리 및 훈련 집단내의 2명 내지 3, 4명으로 구성된 조 단위의 활동을 전체 모임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줌

으로써 상호 평가 및 집단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집단 지도에 속하나 훈련 진행의 초점이 훈련자보다는 피훈련자의 경험과 실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통 집단 지도에서 요구되는 20~30명의 중집단보다는 집단 상담 장면에서 요구되는 7명에서 15명 정도의 소집단이 집단 역동의 활용 및 효과적인 학습면에서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동료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평가

방법

대상

훈련집단 및 중대 : 공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훈련 및 통제 집단 중대로 참가하게 될 2개 중대를 선정한 후, 훈련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중대 내의 12명으로 훈련 집단을 구성하였다. 훈련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통제 집단도 다른 1개 중대 12명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분석에서 훈련 집단의 경우 모임의 3회 이상 결석한 4명 생도를 제외한 8명의 결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통제 집단에서도 사전, 사후 평가에 모두 응한 9명 생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집단 응집력 측정을 위한 훈련 집단 중대는 1, 2, 3, 4, 학년을 모두 포함하여 사전 67명, 사후 64명, 추수 64명이었고, 통제 집단 중대는 사전 68명, 사후 58명, 추수 67명이었다.

모의 내담자 : 2학년 생도 7명이 동료 상담자를 평가하기 위한 모의 내담자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선발은 2학년 집단 심리검사 시간을 이용해 동료 상담자 훈련의 목적 및 모의 내담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 역할을 자원하는

생도 10명 중 연구자와의 개별 면접을 거쳐 의사 표현 능력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7명으로 결정하였다.

훈련자 및 보조 훈련자 : 생도 상담 및 교육 경력이 7년인 본 연구자가 훈련을 맡았고, 훈련자와 모델 역할을 시연한 보조 훈련자는 임상심리 전공의 석사 학위를 보유한 심리학 교관 1명이 담당하였다.

도구

상담 각본 : 모의 내담자들이 사전, 사후 상담자 평가과정에서 사용할 상담 각본은 1차 연구자의 상담 경험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자기 정체에 대한 회의와 이성 및 선배와의 갈등이 증착된 위기 상황의 두 종류로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이는 2차 모의 내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평가에 앞서 완성된 상담 각본을 토대로 모의 내담자들과 연구자가 일대일로 상담자 - 내담자 역할을 실습하였으며, 모의 내담자, 상담 각본, 훈련 및 통제 집단원들은 사전 및 사후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짝지워졌다.

의사소통 능력 검사 : Carkhuff의 인간관계 척도를 동료 상담 훈련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Tindall 등의 의사소통 능력 검사(1985)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의사소통 능력을 고-중-저의 세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담자의 호소문에 대해 객관적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유형과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식 호소문은 그대로 사용되 주관식 호소문은 생도들의 주요 갈등인 대인 관계, 이성 교제, 생활 적응, 선후배 관계, 진로 등의 내용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주관식 호소문의 반응 평가에서 훈련자와 보조 훈련자의 상관은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상담자 평가 척도 : Counselor Rating Form(Barak & LaCrosse, 1975)을 김수현(1988)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전문성, 호감도, 성실성 등 3개 하위 요인이 있으며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83에서 .93으로 보고되어 있다.

자아개념 검사 : 정원식(1968)의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는 총 14개의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중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아긍정, 자아동일성, 자아수용, 자아행동,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등 9개 요인만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생도 집단 응집력 척도 : 군 정신전력 척도(진양갑 등, 1988)에서의 단결 요인과 생도들의 자유 반응, 연구자의 사관학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생도 집단의 응집력을 짚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과 구성시 조직 심리학 전공의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학년 및 중대별로 무선 표집된 생도 12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 1차 작성된 53문항 중 내용 타당도가 부족하거나 전체 신뢰도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8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집단내 대인관계를 나타내 주는 22개 문항과, 집단 활동 및 분위기와 관련된 23개 문항의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이었고, 대인관계 요인은 .80, 집단 활동 및 분위기와 관련된 요인은 .81 등으로 나타났다.

절차

생도 교육 부서와의 협조 하에 시범적으로 2개 중대를 선발하여 이 중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각 중대 3학년 생도 12명으로 훈련 및 통제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훈련 전까지 훈련에 참여하는 전 중대원들에게 집단 응집력 척도를 실시하였고, 훈련 및 통제 집단에는 모의 내담자와의 모의 상담 및 자아개념 검사가 실시되었다. 의사소통 능력 검사는 훈련 집단의 경우 본 훈련 1주에, 통제 집단은 자아개념 검사 등이 실시될 때 같이 시행되었다. 이후 훈련 집단에게는 91년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5주에 걸친 제 1부의 훈련이 실시됐고, 두 주간의 공백 후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머지 5주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통제 집단에는 이 기간 중 아무런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훈련집단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상담자 평가, 자아개념 검사의 사후 측정은 마지막 종합 훈련시에 이루어졌으며 통제 집단에는 같은 주에 사전과 동일한 방식의 세가지 검사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집단 응집력 척도는 앞의 검사들을 모두 실시한 후 훈련에 참여한 모든 중대원들에게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후 측정

이 실시되었다. 집단 응집력의 추수 평가는 피 훈련자들이 4학년으로 진급하여 각 중대의 실질적 리더가 된 새학기에 실시되었으며, 이 척도의 사전, 사후, 추수 평가는 약 3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 처리

본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및 추수의 통제 집단 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훈련전 훈련 집단 및 통제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자아개념 수준, 상담자 요인, 집단 응집력을 통제하기 위해 각 영역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의 통계처리에는 PC용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의사소통능력 : 의사소통 능력 점수의 검사 유형과 시기, 그리고 집단별 평균, 표준 편차와 공변량 분석에 의한 F값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면 훈련 집단은 사후 측

표 2. 동료 상담자 훈련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효과

유 형	시 기	훈 련 집 단		통 제 집 단		F
		M	SD	M	SD	
객관식	사 전	9.25	1.75	9.78	2.44	33.84***
	사 후	13.38	2.26	8.89	1.83	
	(교 정)	(13.54)		(8.74)		
주관식	사 전	6.25	1.16	6.00	.71	70.50***
	사 후	10.75	1.75	5.56	.53	
	(교 정)	(10.78)		(5.53)		
전 체	사 전	15.50	2.56	15.78	2.11	116.65***
	사 후	24.13	2.64	14.44	1.74	
	(교 정)	(24.21)		(14.37)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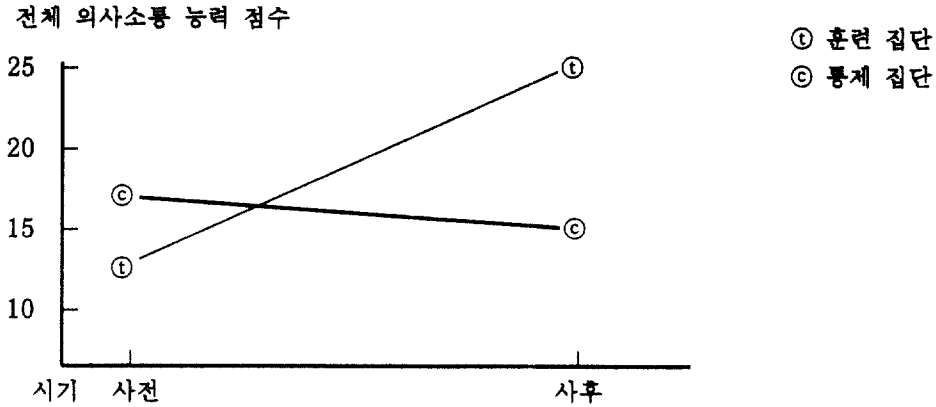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의사소통능력 점수의 시기별 집단 평균

정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검사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의사소통 능력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고 ($F(1, 14) = 116.65, p < .001$), 이는 전체 의사소통 능력 점수의 변화를 집단 및 시기별로 도식화한 그림 1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훈련 후 의사소통 지수에서 의미있는 향상을 가져온 Tindall 등의 연구(1978)와 공감, 온정, 자기 노출면에서 증가를 보인 추 석호의 연구(1987)와 일치한다. 동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Carkhuff와 Ivey의 모형에 따른 의사소통 훈련 및 공감 훈련이 효과적임을 보고한 다른 연구(홍 경자, 1984; 이 은순, 1991)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지지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동료 상담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매우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을 비롯한 상담 기술은 집중적인 훈련에 의해 학습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이러한 결과가 부수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주관식 호소문의 타당성을 입증해 준다는 점이다. 생도 생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한 주관식 호소문은

객관식 검사 이상으로 훈련 전보다 훈련 후 효율적인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자 및 평정자가 연구자란 점에서 연구 의도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나, 피훈련자들에게 친숙한 생활상의 갈등은 이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반응 학습을 보다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훈련 자료나 평가 도구의 구성시 피훈련자들의 생활상의 특성이나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리라 생각된다.

상담자 평가 : 모의 내담자들이 훈련 전후에 평가한 훈련 및 통제 집단의 성실성, 전문성, 호감도 요인에서 두 집단의 훈련 전후 및 공변량 분석에 의해 교정된 평균과 이에 대한 F 검증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호감도 요인의 사후 측정에서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모의 내담자들에게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F(1, 14) = 8.20, p < .01$), 성실성, 전문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나 통제 집단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성실성 : $F(1, 14) = 4.17, p < .06$; 전문성 : $F(1, 14) = 2.21,$

표 3. 동료 상담자 훈련을 통한 상담자 효과

요 인	시 기	훈 련 집 단		통 제 집 단		F
		M	SD	M	SD	
성실성	사 전	51.53	11.59	51.78	11.52	4.17
	사 후	57.63	8.84	45.44	12.95	
	(교 정)	(55.64)		(45.21)		
전문성	사 전	46.25	12.99	46.22	15.25	2.21
	사 후	50.38	19.32	43.33	14.87	
	(교 정)	(50.91)		(43.19)		
호감도	사 전	101.25	23.09	99.44	24.11	8.20**
	사 후	112.88	16.67	83.89	24.59	
	(교 정)	(109.53)		(84.63)		

**p < .01

p < .16] .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모의 내담자들은 사전에 훈련 및 통제 집단 모두를 7점 척도상 평균 4.6에서 5.8까지 높게 평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의 내담자로 상담 전공자를 활용한 이 은순의 연구(1991)에서 사전 점수가 2.3에서 3.4, 그리고 사후 측정에서 4.5에서 5.2의 분포를 보인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이와 같이 사전 측정에서 훈련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이미 호감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과 두 집단 모두 사전에 이미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모의 내담자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이들이 동료 상담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통제 집단은 훈련 전보다 후에 모의 내담자에 의한 전 상담자 평가 요인에서 감소된 경향을 보여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으로 첫째, 모의 내담자들은 이미 훈련의 목적 및 자

신과 상담하는 상담자가 두 집단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연구 목적에 부응하려는 이들의 의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통제 집단의 경우, 아무런 교육이나 훈련없이 평가 대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통제 집단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심리적인 저항을 유발해 낸 결과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평가자와 피험자간의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평가 방법상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상담 관련 연구에서 아무런 처치가 가해지지 않는 통제 집단이나 대기 집단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요구되는 반응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상담자로서의 태도 및 특성 배양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며, 공감적 이해나 공감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성실성, 전문성, 호감도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 연구들(이 은경, 1989; 이 은순, 199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내담자들이 훈련 집단을 전문성이나 성실성 요인에서 보다 호감도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은 전문적 상담과 달리 동료 상담의 효율성은 모의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얼마나 호감적으로 지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아개념 : 자아 동일성을 비롯한 자아개념 하위 9개 요인의 사전, 사후 평균 및 공변량 분석에 의한 사후 평균과 F검정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자아개념의 9개 요인 중 사후 측정에서 훈련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요인은 자아수용이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나 자아개념의 하위요인을 총괄한 총 자아긍정점수에서 훈련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았는데 ($F(1, 16) = 4.16, p < .06$), 이는 동료 상담자 훈련이 피훈련자의 자아개념 향상에 공헌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Brown, 1980; Bell, 1977)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사생도들의 자아개념을 4년간에 걸쳐 횡단 및 종단별로 비교한 연구(김 광은, 1990a)에서 생도들은 1학년 시기에 형성된 자아개념 수준을 2, 3, 4, 학년 시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생도들이 입교후 겪는 급격한 재사회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아개념 수준을 보이는 것은 자아개념 자체가 상당히 안정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자아개념의 안정성과 관련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료 상담자의 자기 이해나 각성보다 상담 기술 및 태도 습득에 초점을 둔 것과 관련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동료 상담자 훈련의 주 목적 중의 하나가 피훈련자들의 자기 이해 및 자기 성장의 욕구를 촉진, 발달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결과는 동료 상담자 훈련시 이러한 측면에 비중을 둔 훈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집단 응집력 : 훈련 및 통제 집단의 소속 중대원이 반응한 집단 응집력 점수의 사전, 사후, 그리고 추수 측정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및 공변량 분석에 의한 F 검정결과 훈련 및 통제 집단이 속한 중대의 응집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인관계 및 분위기 요인은 사전, 사후 및 추수 측정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추세 분석(trends analysis)하였다

표 5에서 보면 집단 응집력의 대인관계 및 분위기 요인 모두에서 사전, 사후 및 추수 측정의 시기 효과는 의미있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1차 추세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2차 추세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를 도해하면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 응집력 척도는 중대 단위의 응집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생도 집단 전체의 응집력을 재는 도구로 기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훈련 및 통제 집단은 모두 사후 측정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물, 그리고 추수 측정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시기별 집단 응집력 변화는 동료 상담자 훈련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의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시기별 집단 응집력의 추세는 사전에 비해 사후 측정에서 전 집단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추수 측정에서 다시 사전 수준

표 4. 동료 상담자 훈련을 통한 자아개념 효과

요 인	시 기	훈 련		집 단 통 계		F
		M	SD	M	SD	
자아동일성	사 전	108.27	12.11	111.78	6.82	.06
	사 후	114.00	6.76	114.11	13.83	
	(교 정)	(114.73)		(113.73)		
자 아 수 용	사 전	98.25	6.14	101.22	4.18	6.52*
	사 후	104.75	9.94	100.22	8.39	
	(교 정)	(106.87)		(97.78)		
자 아 행 동	사 전	102.87	9.91	102.33	7.11	1.67
	사 후	107.25	5.90	104.11	5.25	
	(교 정)	(107.14)		(104.21)		
신 체	사 전	66.87	6.42	69.11	3.95	1.72
	사 후	72.37	7.54	69.00	6.42	
	(교 정)	(72.92)		(68.51)		
도 덕	사 전	59.75	5.87	64.33	4.90	3.22
	사 후	63.50	6.80	61.56	4.00	
	(교 정)	(64.82)		(60.27)		
성 격	사 전	57.75	6.92	56.56	5.96	.25
	사 후	63.12	3.64	61.11	8.68	
	(교 정)	(62.94)		(61.28)		
가 정	사 전	66.00	9.35	69.44	6.64	.08
	사 후	67.37	4.03	66.78	6.36	
	(교 정)	(67.46)		(66.70)		
사 회	사 전	59.62	5.97	56.89	2.93	.89
	사 후	59.62	5.42	61.22	4.29	
	(교 정)	(59.16)		(61.52)		
총자아긍정	사 전	312.50	29.30	316.33	15.03	4.16
	사 후	326.00	19.32	323.11	22.54	
	(교 정)	(334.26)		(331.32)		

*p < .05

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후 측정시 집단 응집력이 떨어진 원인의 하나로 당시 3학년 생도들의 집단적인 비행 사건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기 저하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추론에 불과하므로 생도 집단 응집력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료 상담자 훈련이 집단 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집단 응집력 척도는 중대 단위의 응집력 측정에는 적절치 않

표 5. 집단 응집력 점수의 추세 검증에 위한 변량 분석

요 인	변 량 원	자 유 도	자 승 화	평균자승화	F
대인관계	시 기(사전/사후/추수)	2	5738.57	2869.28	14.79***
	1차추세	1	564.36	564.36	2.58
	2차추세	1	5174.21	5174.21	30.45***
	집단 (훈련/통제)	1	75.91	75.91	.45
	집단 X 시기	2	702.51	351.26	1.82
	집단 내	230	44607.47	193.95	
	전체	234	51124.46		
분위기	시 기(사전/사후/추수)	2	29123.46	14561.73	66.45***
	1차추세	1	6.46	6.46	.02
	2차추세	1	29116.99	29116.99	175.89***
	집단 (훈련/통제)	1	759.21	759.21	3.43
	집단 X 시기	2	353.27	176.63	.81
	집단 내	230	50405.24	219.15	
	전체	234	80641.18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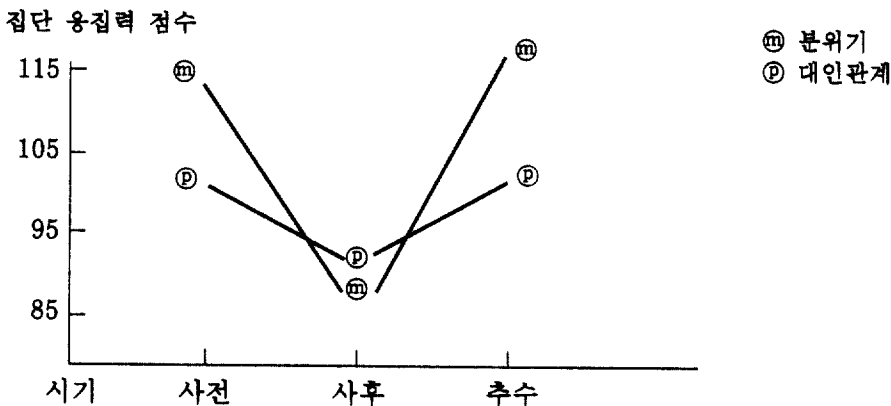


그림 2. 집단응집력 점수의 시기별 집단평균

은 것으로 나타나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척도는 전체 생도 집단의 응집력을 설명하는데는 비교적 안정성을 보여 동료 상담자 훈련 및 훈련받은 동료 상담자들의 활

동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도 집단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기 측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동료 상담자 훈련이 집단 응집력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 의

지금까지 동료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논의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훈련을 전담할 훈련자 이외에 관련있는 행정가나 훈련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동료 상담에 관한 욕구조사는 본 훈련의 필요성 및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훈련 및 평가자료 구성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이를 뒷받침 해 줄만한 이론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는 동료상담이 형식적인 이론에서 발전해 온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적인 요구에서 성장해온 사실과(Varenhorst, 1984), 동료상담자 훈련의 배경이 되는 심리교육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에 아직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점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동료 상담 프로그램은 그 대상을 동료로 한정하였을 뿐 일반 상담 실습자를 위한 훈련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동료 상담자 훈련만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기 어려웠다는 점도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든든하게 하지 못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훈련 기간의 제약상 기초적인 상담 기술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훈련 자료가 우리와는 문화와

생활경험이 다른 미국에서 개발된 것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 등은 본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프로그램의 수준을 차등화한 고급 수준의 개발로 보완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앞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에서는 훈련 자료나 사례를 우리 문화나 특정 장면에 적합한 것으로 개발, 활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된 프로그램 평가 단계에서는 우선 평가 변인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 변인과 상담자 평가 변인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과면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훈련후 상당한 증가를 가져와 본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담자 평가에서는 모의 내담자에 의해 '호감도' 요인만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제 훈련을 통한 성과인지 아니면 동료 상담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개념과 집단 응집력 변인은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본 훈련의 성과를 평가하는 변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기술 배양에 초점이 맞춰진 본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동료 상담자 훈련을 통한 동료상담이 이들이 속한 집단 전체의 인간관계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동료상담자 훈련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대부분 기술적인 자기 보고에 머물고 있는 현

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유사실험적인 평가는 훈련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의 내담자나 상담 각본을 통한 평가 조건의 통제는 자연스런 상담장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장면을 연출하였고, 하루 일과 및 전 생활을 함께하는 생도생활 특성상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평가 방법상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결과 분석에서 사용된 훈련 집단의 인원이 8명으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사관 생도라는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라는 점, 그리고 사관생도 이외의 집단(예: 일반 대학생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도하지 못한 점 등은 본 평가 과정의 한계이면서 본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하여 동료 상담자 훈련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료 상담자 훈련의 목적과 과정은 동료 상담이 시행될 조직이나 내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동료 상담은 그 개념이나 활동면에서 아직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된 동료 상담자 훈련 내용과 방법 등은 모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역시 모든 장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료상담의 현 실태를 감안하여 동료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시에는 집단의 특성과 내담자의 요구를 고려한 목표나 과정 설정이 동료 상담을 통한 기대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동료 상담자 자격 및 선발 과정에 대

한 관심이 필요하다. 동료 상담은 전문적 상담 기술이나 지식에 의거한 상담 성과를 기대하는 활동이라기 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나 동기,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하는 생활 경험이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효율적인 동료 상담자 역할에서 요구되는 특성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선발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동료 상담자 훈련 내용은 상담에 필요한 기초 기술의 제공 못지 않게 동료 상담자 자신의 이해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료 상담자는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므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 요구되는 기술 훈련 이외에 이러한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훈련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료 상담자 훈련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인 및 방법 선정과 관련된 관심이 요구된다. 동료 상담자 훈련의 효과는 훈련받은 동료 상담자, 이들에 의해 상담받은 내담자, 동료 상담자 및 내담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등 여러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차원의 평가만으로 전체적인 훈련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며, 아직 각 단계별 훈련 효과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공군사관학교 상담실(1990). 공사 생도의 생

- 할 실태 및 의식 조사. 미간행 자료.
- 김 광은(1990a). 공사 생도의 자아개념에 관한 일 연구. 공사 논문집, 제28집, 공군사관학교.
- 김 광은(1990b). 정신 건강 자문에 관한 고찰. 공사 논문집, 제29집, 공군사관학교.
- 김 계현(1990). 카운슬링의 실제, 성원사.
- 김 수현(1988). 상담자의 언어 반응과 내담자의 친애 욕구가 상담의 과정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 정희(1990). Peer Counselor 활동에 관한 일 연구. 지도 상담, 계명대학 학생생활연구소, Vol. 14, 43-50.
- 김 충기 등 역(1989). George, R. & Christiani, T. (1981). 상담과 심리 치료, 교육과학사.
- 육군사관학교 심리학처(1991). 생활지도과 성과 분석. 미간행 자료.
- 이 관용·김 순화(1983). 대학에서의 동료 카운슬링.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권 1호, 18-29.
- 이 수용·문 길린(1990). 대학생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료집단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도 상담,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Vol. 14, 1-42.
- 이 은경(1989). 공감적 이해와 상담 효율성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모의 상담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 온순(1991). 상담실습자 교육에서의 공감 훈련 효과의 분석- 잠재력개발 집단상담, 심리극 집단 상담과의 비교-.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 장호(1988). 대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집단상담 활용방안. 학교상담에서 프로그램의 활용,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 형득(1982). 대학생 지도의 최근 동향.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기능 정립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26-45.
- 이 형득·김 정희(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지도 상담,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8집, 41-63.
- 이 혜성 역(1980). 피에트로메사, J., 존 등. 완전한 카운슬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 혁표(1986). 동료 집단상담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연구보, 제 22집,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5-49.
- 진 양갑·김 종찬·김 종태·송 기학(1988). 군정신전력측정평가방안연구(I). 국군정신전력학교.
- 추 석호(1987). 동료집단상담장면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황 용연(1985). 한국의 카운슬링 운동의 회고와 전망. 변천하는 사회, 성장하는 청소년, 정민사.
- 홍 경자(1984).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15집, 97-125.
- 홍 경자·노 안녕(1985). 자아개념 및 자존심이 미치는 또래상담자에 의한 집단 훈련의 효과.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 17집, 75-95
- Bell, C. M. (1977). *Changes in Self 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Peer Counselors in an Urban School Distri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aryland College Park, MD.
- Brown, T. P. (1986). Increasing Nutritional

-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Using Peers as Consulta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4), 376-377.
- Campbell, H. J. (1988). *Starting a College or University Peer Support Cent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EDRS ED 298 419).
- Chickering, J. N. (1987). *Warmline Training Manual: Peer Counseling Returning Adult Students*, Center for Student Development, Memphis State Univ. (EDRS ED 289 125).
- Crouse, R. (1985). Using Peer Network Therapy with a Residential Program for Chicano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549-550
- Durlark, C. (1979).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ara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86(1), 80-92.
- Fondacaro, M. R., Heller, M. & Reilly, M. (1984). Development of Friendship Networks as a Prevention Strategy in a University Megadorm.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May, 520-523.
- Frisz, R. H. (1986). Peer Counseling : Establishing a Network in Training and Superv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457-459.
- Fullmer, D. W. (1978). *Group Counseling*. The Carroll.
- Grant, T. H. (1987). *Peer Assistance and Leadership (PAL)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National Peer Helpers Association Conference (EDRS ED 292 047).
- Hattie, J. A., Sharply, C.F. & Rogers, H. J. (1984).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Helpers. *Psychological Bulletin*, 95(3), 534-541
- Kehayan, V. A. (1987). *Fort Lee's Comprehensive Peer Outreach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National Peer Helpers Association Conference (EDRS ED 293 049).
- Kending, P. A. (1985). Peer Counselors in Traditional Fraternity and Sorority Hous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551-552.
- Maher, C. A. & Bennet, R. E. (1984). *Planning and Evaluating Special Education Services*. Englewood Cliffs : Prentice - Hall, Inc.
- Nenortas, G. V. (1987). *A Drop Out Prevention Program Utilizing Peer Group Counseling with Middle School Alternative Students*. Nova University (EDRS ED 289 118).
- Nietzel, M. T. & Fisher, S. G. (1981).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 and Paraprofessional Helpers: A Comment on Durlak. *Psychological Bulletin*, 89(3), 555-565.
- Puccio, P. M. (1986). *TAs Help TAs : Peer Counseling and Mentoring*.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Employment and Education of Teaching Assistants

- (EDRS ED 285 502).
- Rabiecki, P. & Brebeck, M. M. (1985). A Peer -designed Peer Advisement Program. *Th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 73-74.
- Rosenrol, D. A. (1988). Peer Counseling: Implementantation and Program Maintenance Issu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eer Helper Association Conference (EDRS ED 298 361).
- Sachnoff, I. S. (1984). *High School Peer Resource Programs : A Director's Perspective*. San Francisco, CA:author.
- Tindall, A. J. (1985). *Peer Power-Becoming An Effective Peer Helper Book 1, Introductory Program (2ed)*. Muncie:Accelerated Development.
- Tindall, A. J. (1989). *Peer Power-Becoming An Effective Peer Helper Book 2, Applying Peer Helpers Skills*. Muncie:Accelerated Development.
- Tindall, A. J. & Gray, H. D. (1985). *Peer Counseling-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2ed)*. Muncie :Accelerated Development .
- USAF Academy (1989). Flight and Squadron Specialist Program. *USAF REGULATION (537-37)*.
- Vanrenhorst, B. B. (1984). Peer counseling : Past Promis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A Study on Peer Counselor Training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raining Program for Cadets -

Kwang-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pply theoretical bases and training materials for peer counseling. The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 a discuss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peer counselor training program and the evaluation.

To develop the peer counselor training program for cadets, a review of former studies, an assessment of needs, and an analysis of counseling cases were carrie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purpose i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in human relations, which include listening, attending, empathy, questioning, and genuineness. Second, these skills are designed for the practical cases, which mainly concentrate on senior-junior relations, sex, career, and adaptation, all of which cause major conflicts for cadets. Third, this program is suitable for a small group of about 10, and it needs 20 hours of tra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through the pseudo-training experiment in which the subjects were cadets of the 3rd year in the Air Force Academy. In the evaluation, the emphasis was put on whether the program was helpfu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eer counselors and on what effects the peer counselor training has on the group cohesion of cade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mmunication skills, counselor attitude, and self-acceptance of the trained group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the training. However, cadet group cohesion decreased sharply in the post evaluation in both groups, but was restored to the previous level in the follow-up evaluation.

This peer counselor training program and relevant material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for the training of beginner counselors. Despite some limitations, this study presents a systematic process of peer counselor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It is expected, therefore,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a model for developing relevant counseling programs.